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최승주*

- | | |
|------------------------------------|----------------------------------|
| I. 서론 | II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기여와 갈등 |
| II.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사 검토 | IV. 종교 단체의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역할 제안 |
| | V. 결론 |

국 문 초 록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특히 개신교로 대표되는 종교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국내 정착의 과정 중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참여율은 감소하고 종교 집단과 북한이탈주민의 기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의 변화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종교계 지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남한의 종교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도구화하는 것을 멈추고 북한이탈주민 그 자체를 환대하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세속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모습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단절과 상실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할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종교성향, 종교 활동, 개신교, 종교사회복지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논문 및 저서 “종교활동과 종교성향”, “종교성향과 우울정도”. 『웰컴투 코리아
복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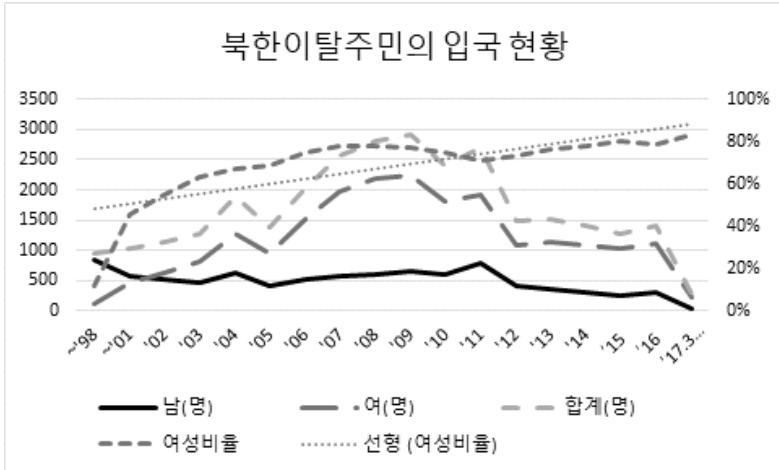
I. 서론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3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사회통합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세분화하며 정부 주도하의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김미혜 외, 2016: 43). 주목할 것은 이 법을 기조로 하는 정부 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북한주민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과, 활동 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변화되었고, 그 중 종교 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김치영, 2003: 83-84; 한겨레신문, 1999/11/04¹⁾).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입국자 수가 2016년 말 3만 명이 넘으면서, 이들의 입국은 여성 비율의 증가,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증가, 고위엘리트층을 비롯한 직업군 다양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초기의 단순 보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탈북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 소속감과 자신감 부여, 사회와의 융합 등을 위한 사회통합형 추진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장명선 외, 2017: 382, 395; 통일부 보도자료, 2016/11/25).

1) 한겨레신문(1999/11/0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해,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가한 단체는 한기총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 벗들, 선한 사람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인성개발연구원, 원불교 강남교당, 일산장학회, 행주치마운동본부,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등이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출처: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북한이탈주민정책, 2017/08/30일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일하는 민간단체에는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 단체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종교 단체이고 그 활동 범위가 탈북 과정, 제3국 체류, 국내로의 입국, 국내 정착에 대한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정착의 전 과정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박광득 외, 2002). 특히, 기독교 단체는 조중 국경통제 강화로 사역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은신처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박예영, 2015; 기독교일보, 2015/02/27), 국내정착 단계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우택 외, 2003: 168). 그 결과 기독교 단체와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탈북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종균, 2015: 278-282; 윤여상, 2003 112-114;

이순형 외, 2015: 111, 143, 223; 전우택 외, 2003: 191-192; 진미정 외, 2009: 143-14; 한국여성개발원, 2000).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종교인의 행동에 대한 실망, 종교 단체의 현금이나 현물 지원 차별화 등을 이유로 종교를 옮기거나 떠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이순형 외, 2015: 137-139; 최승주, 2005; 동아일보, 2013/08/26). 개신교 이단 세력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전도에 힘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권혁률, 2016: 243), 종교 활동의 참여를 조건으로 매달 10~20만원 정도의 현금과 쌀, 김치 등을 지원해주는 이단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800~900명에 이르는 것을 우려하는 개신교 내부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04/03; 윤현기, 2012: 138).

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지원 사업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고성행, 2016: 4-5; 광연실, 2008: 2; 김병욱 외, 2010; 이순형 외, 2015: 242), 이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본다.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활동해 온 개신교 단체의 성과와 그 속에서 관찰되는 갈등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제3국 체류, 남한 입국의 과정에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로부터 수혜자적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종교 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특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던 개신교로부터 떠나거나 종교 상태를 바꾸는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가 북한주민의 독특한 종교성향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정착, 적응하는 전 과정에서 종교사회복지 활동으로써의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한다.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어떠한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하여 종교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사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배경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귀국동포 및 일반 외국인과는 차별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과 동등한 사회적 배제 수준으로부터 점차 수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과 체제를 변화시켜 오는 중이다(김태수, 2009).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주류 사회로의 동화-포섭과 편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주류 집단의 태도가 불명확하고 유동적이어서 사회갈등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윤인진, 2015).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으나, 공동체 내 이들의 정체성 확립의 정도와 주류집단과의 조화의 상태는 만족 상태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이들의 적응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적응과 지원 제도의 개선’에 집중되었다가, 이에 못지않게 남한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제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사회는 어떠한 포용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또한

남한의 사회문화가 표준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이주민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권리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주류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적응론, 사회적 배제론, 다문화주의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윤인진, 2009).

(1) 적응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 진입이 어렵고 주변인으로 머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응론의 관점이 유용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주된 이론적 관점은 적응론이고,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적응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고성행, 2016: 12, 윤인진, 2009: 44).

류재화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성을 연구함에 있어 이용한 사회적응론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동화론, 다원론, 분절동화론, 문화변형론이다. 소수집단과 다수집단간의 인종민족관계 이론은 크게 동화론과 다원론으로 구분한다. 미국의 상황에서 발달한 동화론은 이민자와 소수민족들이 미국 주류사회의 성원이 되기 위해 그들의 전통, 가치, 관습들을 버리고 주류사회의 가치, 언어, 생활양식을 수용함을 설명한다. 시카고 도시학파를 창시한 파크(1864~1944)는 미국의 인종 및 민족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순환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민자들이 접촉, 경쟁, 수용, 동화의 단계를 거쳐 백인 토박이들과 구분이 안 되고 결국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다

고 하였다(류재화, 2016).

동화론은 이민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받아들여지며 발전했으나,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같이 미국 사회에 구조적 동화를 이루면서도 집단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현상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이 세대가 지나도 차별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족적 차이와 이질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집단간 다양성과 집단경계의 유지를 권장하는 사회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원론이다. 이는 문화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문화적 다원론은 동일한 경제정치적 체계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 다원론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어느 정도 분리된 민족공동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 공동체 내에 학교, 사업체, 교회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시설을 가지고 대부분의 일상 생활을 이곳에서 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1960년대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며 정착하였는데 여기에서 과거의 이민자들과는 다른 사회통합방식이 관찰되었다. 한국이나 인도 출신의 고학력 중산층 이민자들은 빠른 시일에 주류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반면, 멕시코 등 남미 출신의 저학력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하층 계급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관계를 동화나 분리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했던 기존 이론을 보완하여 여러 가지 분절된 모습으로 대안적 적응방식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분절 동화론이다.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 다민족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의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장기간의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문화변형론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집단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그것이다(류재화, 2016: 10).

(2) 사회적 배제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가 다룰 때 적응론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을 부여했다면,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배제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적 배제론이다. 사회적 배제론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가 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윤인진, 2009: 49).

사회적 배제론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결함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 재구조화와 같은 사회적·구조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윤인진, 2009: 53).

(3) 다문화론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자녀, 재외동포 등이 증가하면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자 다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연구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 집중되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보며 다문화관점으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는 이들을 다문화 집단으로 보고 인권과 시민권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난민 또는 이

주자로 바라보는 것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다문화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성으로 대해야 하며, 이들을 소수집단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관대히 대함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이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으로 여겨 정착 초기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와 한계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지금까지 ‘적응과 지원 제도의 개선’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는 이들의 남한사회로의 적응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정책 목표가 이들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설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적응론을 관점으로 하는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법이나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이어 그 종류와 수가 두 번째로 많다(이영선, 2011).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전우택, 1997), 『북한이탈주민가족의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한국여성개발원, 2000),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박광득, 200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조사』(이금순 외,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전우택 외, 2003),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윤여상, 2005), “북한이주민 가족의 적응과 가

족관계의 변화”(윤인진 외,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이순형 외, 2007),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 방안”(김용태, 2010), “북한이탈주민의 영적의미 인식이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박건수, 2014),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민지 외, 201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한지은, 2017a) 등 의 제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사회문화, 심리적, 체제적응, 생활 적응, 경제적 적응 등에서 다루어진다.

적응론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에 관한 여러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문헌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문화적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응론적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회적응을 진단함에 있어 대체로 “결여의 시각”을 취하는데,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성, 의지, 학력이나 기술, 사회연결망 같은 사회자본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식의 방식을 획득하게 함으로 사회의 적응에 성공하도록 하는 동화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간과하는 것이고,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며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변화에 대한 이해가 빠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윤인진, 2009).

적응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배제론이다. 이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가 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윤인진, 2009: 4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유지웅, 2006),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김태수, 2009), 『탈북인의 사회적관계망과 사회적자본』(진미정, 2009),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조정아 외, 2014),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김정규, 201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방안 연구 :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한지은, 2017b) 등의 연구가 사회적 배제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율, 실업율, 저학력, 주거 상황 등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지표들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분석한 결과 빈곤, 실업, 학력, 건강, 주거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탈북민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도 열악한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심리적으로도 남한주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관점에서 보거나 다문화 집단과 비교하는 시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난민 또는 이주자로 바라보는 등 다문화론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탈분단·다문화 시대, 마이너리티 민족지”(정진현, 2007),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김현경, 2009),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이희영, 2010),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이희영, 201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이소희, 2013), “북한이탈주

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계민, 2015),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양계민 외, 2016),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김현정, 2016) 등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성으로 대해야 하며, 이들을 소수집단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관대히 대함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이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으로 여겨 정착 초기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자 동포인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이민자,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부류로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론 관점에서 보는 것에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론은 한국인의 다문화적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인프라 환경을 검토하고 문화권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윤인진, 2009: 56, 64).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어떠한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연구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단체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종교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때 이들을 대하는 시각과 바라보는 자세가 종교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종교의 모습과 비교해봄으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와의 기여와 갈등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성과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특히 개신교 참여 비율은 남한 사회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기독일보, 2015/12/2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김병욱 외, 2010; 이순형 외, 2015; 전우택 외, 2003; 전우택, 2010; 최승주, 2006). 북한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선교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배워온 북한 출신 이주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순형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교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의 이유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그들은 공식적으로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본질적인 종교성을 찾아내고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학문적 연구의 가치가 있다. 둘째, 개인의 회심을 통한 종교적 신앙생활이 정신건강이나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학문적 관심을 끈다.

처음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개신교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외 NGO의 대부분이 남한 NGO이며 그 중에서도 종교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계선교에 깊은 열정을 가진 남한의 개신

교가 막대한 후원을 하며 국내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이다(조서영, 1999; 박연실, 2008).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두 자리 숫자로 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정착지원 방향이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립되던 1994년 이후, 종교 단체는 개별 또는 연합의 형태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왔다. 이 무렵 극동방송국에서 이들의 가구, 이불 등 생필품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시작했고, 개별교회나 교회연합회 등이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1999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 해결, 표준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상호 정보 공유, 정부와 의사소통 창구 일원화를 목표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했는데, 이 회원들은 주로 종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김치영, 2003: 83-84).

개신교 단체가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은 크게 탈북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활동과 이들의 국내 입국 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종교 단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활동은 효과와 영향력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처음 종교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소로 중국 등 제3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연구(이순형 외, 2007: 238)와 남한에서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이순형 외, 2007: 187)에서 보듯이 경증을 따지기 힘들 정도이다.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은 크게 생존권 보장 활동과 난민 지위 부여 활동이 있다(조서영, 1999). <한기총>²⁾ 등 기독교 단체는 식량난으로 탈북이 급증하던 시기에 식량을 지원 하였고,

2) 한기총은 한국기독교단체 총연합회를 이르는 말로, 1989년에 출범한 기독교 보수주의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개신교 연합회이다. 1991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허가되었다. 홈페이지에 명시하는 5대 목표는 한국 교회의 연합, 사회 통합의 주체,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힘을 모아 이슬람 확산·동성애 합법화·이단문제 등에 적극 대처 등이다.

현실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생계비 지원하고 은신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입국을 추진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또한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탈북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명줄 운동>도 생존권 보장 활동에 해당한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난민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UN, 미국 의회, 중국과 러시아 정부 등과도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조서영, 1999: 59-66).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로 입국한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신교 종교 단체의 지원활동은 더욱 조직화되며 활발하게 수행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형교회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남서울은혜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등의 규모와 역량을 갖춘 교회가 교회 내에 담당선교부와 전일교육자를 두고 소그룹 모임 조직, 하나원 퇴소 후 정착에 필요한 업무 지원, 의료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하며 주로 예배 조직에 연결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을 한다. 둘째, 기독교 단체가 연합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등이 있는데, 이들 학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근대적 교육을 받아온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규학교에서 부적응과 학습부진을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취업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이다. 일반 직장에서의 취직을 목적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운영하는 <정착지원센터>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목표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들을 대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굿피플 자유시민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곽연실, 2008; 김영식, 2009).

일반적으로 종교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종교 기관의 피난처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화나 학습 기회를 얻는다. 탈북과정 중에서의 종교 경험은 이후 남한에서도 이어지는데, 이러한 종교 및 종교 기관과의 상호작용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종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내재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최승주, 2006). 또한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외 종교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응을 더 잘 하고, 남한에서 동교회나 교회모임 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남한사회 적응을 더 잘한다(박건수, 2014). 또한 종교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고양시켜 정착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우택 외, 2009).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종교 단체의 상호작용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1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7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를 가진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직장 생활이 바쁘기 때문이거나 강요당하는 것이 싫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전우택 외, 2009). 또한 일부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이용한 이벤트 참가와 보상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종종 종교나 종교 단체를 불신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임정빈, 201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개신교도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추적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확인된 비율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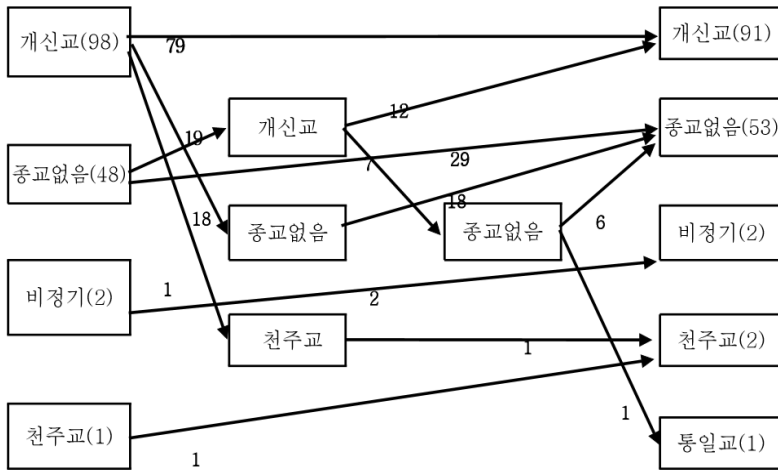
<표1>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참여율과 개신교 비율

구 분	연도(연구자)	종교 활동 참여율	개신교 비율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참여율	2001(전우택, 2010)		75.5%
	2003(이금순 외)	60%	종교인 중 62.5%
	2003(전우택 외)		61.9%
	2004(전우택, 2010)		71.7%
	2005(이순형 외, 2007)		70.5% (청소년)
	2006(최승주)	64.4%	61.1%
	2007(전우택, 2010)		58.8%
	2007(전우택 외, 2010)		53.8%
	2015(이순형 외, 2015)	15%	46.9%
	2015(기독일보 기사)		35%
남한사회 일반 국민의 종교참여율	2014(한국갤럽, 2015)		21%
	2017(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론조사)		19.3%

출처: 기독일보, 2015/12/2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김병욱 외, 2010; 이순형 외, 2015; 전우택 외, 2003; 전우택, 2010; 이순형 외, 2007; 최승주, 200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개신교에서의 이탈 현상은 <그림2>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최승주, 2005). <그림2>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활동을 3년 동안 추적하여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입국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65.8%(149명 중 98명)가 개신교인이었지만,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개신교인의 일부는 다른 종교로 전환하거나 종교생활을 중단하여 그 수가 줄어든다. 이러한 개신교에서의 이탈 현상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지 4년 미만의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림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변화



출처: 최승주, 2005: 20.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제3국 체류, 남한으로의 입국 과정,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의 과정에서 종교나 종교 단체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적지 않고(김중군, 2015: 279; 김현경, 2009:

243; 이순형 외, 2015: 111, 142-143; 진미정 외, 2009: 145; 한국 여성개발원, 2000: 191), 여전히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종교 및 종교 단체와의 갈등 양상을 알아보고, 남한 주민과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성애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2. 북한이탈주민과 종교 단체 간의 갈등과 원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통제 강화로 활동 제약이 심해지고, 복지의 수혜자일 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개신교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제3국 체류,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점점 낮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집단으로 종교 활동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 확인되고 있다(윤현기, 2012: 138; 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04/03). 북한이탈주민과 종교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둘 사이의 동상이몽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종교나 종교 단체에 기대하는 것과 실제 얻는 것, 그리고 종교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대하는 바와 그 결실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개신교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을 돕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구화하고, 북한 복음화와 평화 통일, 나아가 세계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의 교회 현장을 놓고 본다면, 남한의 개신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도적·선교적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조선족사회

로부터 중국 국경으로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진다(정진현, 2007). 남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용한 이벤트성 활동으로 인해 자신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다고 여겨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나 종교 단체를 불신하는 일도 종종 확인된다(임정빈, 2012). 북한선교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두는 한기총은 식량난이 심해져 조중 접경지역에서 구호사역을 할 때, 이들에게 식량을 주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선교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조서영, 1999). 이에 대해 한국의 개신교는 지난 시간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해온 통일선교사역을 반성하고, 선교에 앞서 이들이 처한 상황(here and now)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곽연실, 2008: 40-41; 김병욱, 2010). 남한 사람-조선족-북한 사람들 사이를 일방향적 권력관계 또는 삼각관계로 재편하면서 민족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화적 경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계급계층화, 심지어 인종화까지 분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정진현, 2007: 150-151). 개신교가 북한이탈주민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들을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종교에 갖는 기대는 어떠할까? 북한이탈주민이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이고, 남한 사람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그 뒤를 따른다(최승주, 2005: 22)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나온 후 가장 지배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들에게 자유와 안전은 보장된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닌, 스스로 구하고 만들어야 하는 도전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외로움이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전무한 남한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도 생긴다(이순형 외, 2015: 126-127). 이들의 상황에서 종교는 안성맞춤과도 같은 것이어서 종교를 처음 접

할 때 통성기도와 방언,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 회개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낯선 요소들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면서까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이렇게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종교 활동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치체계가 북한을 떠나오면서 무너진 후 공백을 체험하는 상황에서 종교가 새로운 가치체계로써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유시은 외, 2012). 또한 종교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물질적·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종균, 2015: 325; 이순형 외, 2015: 138-139).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목사나 전도사들이 많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 돈도 가장 많이 쓰는 종교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3/08/26).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이 개신교에서 다른 종교로 종교를 변경하거나 종교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나 남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데에 실망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예배·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싫어서’가 그 뒤를 따른다(전우택, 2010: 57; 최승주, 2005: 24). 중국에서 생활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한 행 티켓을 받기 위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든지, 남한사회에 들어온 이들은 생활의 무게에 눌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면서 종교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나와 남한 사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를 접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비율의 종교 활동 참여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를 떠나거나 형태를 바꾸는 이유는 이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탈북과정에서 북한에서 가졌던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무너지면서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종교에 대한 신앙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했으나, 이 새로운 체계 또한 경험해 보니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알고 지냈던 목회자나 교인으로부터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거나 실망하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절대적인 가치체계로 삼고자 했던 마음에 큰 타격을 입고 교회를 떠난다.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개신교 교리가 북한의 주체사상만큼 절대적 신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며 종교적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한다. 여기에 남한 교회의 세속적 측면까지 접하게 되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무너지고 삶의 지향점을 잃어 자포자기의 상태나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한다(정병호, 2004; 이순형 외, 2015: 240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이 종교를 떠나거나 변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종교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3국에서는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하거나 성경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잡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김종근, 2015: 325; 이순형 외, 2015: 138). 하나원은 남한사회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종교에 관해 백지상태이고,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일부의 북한이탈주민들도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위해 교회, 성당, 법당을 두고 종교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이면 모여 앉은 이들이 오늘 종교 단체에서 무엇을 받아 왔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기독교는 돈이 많고, 불교는 돈 생기면 땅만 사며, 성당은 퇴소할 때 한꺼번에 선물을 준다는 등 특정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질과 관련된 풍문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종교에 참여했다가도 결국 보상이 종교 참여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이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은 교회, 성당, 법당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동아일보, 2013/08/26).

사회에 나온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재회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선교를 위한 현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계를 유지 하였던 교회나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주거나 초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결과 본인을 돌보아 주었던 교회나 단체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감으로 이들을 데려온 선교사나 개신교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도움이 절실했던 처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인연으로 속박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섭섭함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는 절박할 때의 신앙심을 잃고 교회를 도구화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교회를 이용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이순형 외, 2015: 239-240).

종교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북한이탈주민의 행동양식은 최근 이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개신교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수 있다.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 및 이단사이비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종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급하는 지원금, 신도들의 친절한 행동과 배려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단 단체의 예배나 모임에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출석하는 이단 단체는 만민중앙교회(담임 이재록)와 사랑하는교

회(담임 변승우, 구 큰믿음교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민중앙교회에는 350~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출석하는데, 이들에게 김치, 쌀, 김 등의 부식물과 매달 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는 조건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일요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 번에 걸친 출석 점검을 한 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노라고 증언하였다(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04/03).

1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랑하는교회에서도 매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20만원의 명절지원금을 구정과 추석에 지급한다. 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단과 정통의 차이에 대해 분별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은 다 같은 줄 알 정도로 종교지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주의 신격화, 다른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비방, 과도한 자기 종교 자랑 등을 접하면서 이단의 차이점을 알고 불편히 여겨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단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최근 급증하여 많게는 900명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단 단체의 포교와 지원은 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04/03).

3. 종교성향으로 살펴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개신교로 대표되는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순수한 신앙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고,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원인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종교 상태를 변화하는 요인으로 남한 주민들과는 다

른 종교성향이 관련 있다는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영아(2004)는 최영민 외(2002)가 개발 표준화한 내재적-외현적 종교 성향척도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성향을 측정하였는데, 그들의 종교성향은 남한 주민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한 주민은 내재적 성향이 높고 외현적 성향이 낮아 비교적 종교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외현적 성향이 높아, 종교를 자신의 생활에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도구로서의 종교관을 소유하는 특징이 있었다(조영아, 2004: 286).

종교성향은 Hood의 방법에 따라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현적 종교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Hood, 1970: 288). 각 개인의 내재적 성향도를 x , 외현적 성향도를 y 라고 하고, 전체 내재적 성향도의 중앙치를 X , 전체 외현적 성향도의 중앙치를 Y 라고 한다면, $x < X$ 이고 $y < Y$ 인 경우 내재적 종교성, $x < X$ 이고 $y > Y$ 이면 외현적 종교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x > X$ 이고 $y > Y$ 이면 친종교적 성향, $x < X$ 이고 $y < Y$ 이면 반종교적 성향으로 분류된다(최승주, 2005).

<그림3> 종교성향 분류

내재적 성향도

5	내재적 집단	무분별한 친종교적 집단 (Pro-religious)
3		
1	반종교적 집단 (Anti-religious)	외현적 집단
	1	3
		5
		외현적 성향도

북한이탈주민이 종교를 유지 여부 및 이탈 현상과 종교성향의 관련성은 뚜렷하다(최승주, 2005). 최승주는 추적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변화를 관찰한 결과 종교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집단에서 내재적성향과 외현적성향은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를 유지하고 변경하는 상태에 따라 종교성향의 평균값이 차이를 확인했다(최승주, 2005: 32, 37). ‘개신교를 유지’하는 집단에서 내재적성향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종교 없음→개신교’, ‘개신교→종교 없음’ 순이고, ‘종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이 가장 낮았다. 외현적성향도는 ‘종교 없음→개신교’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개신교를 유지’하는 집단이 높았다. 개신교에서 종교 없음으로 변하는 집단과 종교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의 내재적 성향과 외현적 성향은 모두 낮았고, 또한 내재적 집단에서는 개신교를 유지하는 비율이 100%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우는 내재적 성향과 외현적 성향이 모두 높은 친종교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두 종교성향이 모두 낮은 반종교적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남한의 남성이 외현적 성향이 높고 내재적 성향이 낮은 외현적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최승주, 2005: 33-37).

전우택(2010)은 북한이탈주민이 종교를 유지하는 이유가 2004년에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함’이 가장 높은 비율(66.2%)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3.9%로 매우 낮았지만, 2007년에 추적 조사한 결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38.3%로 크게 증가하여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마음의 안정’에 뒤를 잇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도덕적 삶, 마음의 평화 등의 내재적 이유를 가지고 종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거나 남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외향적 이유로 종교를 유지한 사람들보다 많았다(전우택, 2010: 57).

이순형 외(2015)에 의하면 종교를 내면화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회 적응과 정신건강의 면에서 종교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종교를 외면화하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순형 외, 2015: 243). 이순형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을 Hood의 방법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한 바 있다(이순형 외, 2015: 181-183).

(1) 적극적 몰입형

적극적 몰입형은 내재적 성향과 외현적 성향이 모두 높은 무분별한 친종교적 집단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시작하지만 신앙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처음에는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만, 회심의 과정을 거쳐 신앙을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로, 정착 이후에도 신앙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충만한 내재적 종교성을 지닌 동시에 외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신앙생활과 개인생활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

(2) 도구적 이용형

외현적 성향은 높고 내재적 성향은 낮은 외현적 집단을 ‘도구적 이용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국에서부터 종교를 알아왔고,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그 목적을 신앙이나 하나님이 아닌 생활상의 필요와 유용성에 둔다. 이순형은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그 이유는 면담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볼 수는 없고, 종교에 참여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장학금 등 지원금을 받는 등 종교를 도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3) 회의적 냉담형

두 가지 종교성향이 모두 낮은 반종교적 집단을 ‘회의적 냉담형’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종교를 외적 활용도에 의해 선택하는 성향도 낮다. 이들은 ‘도구적 이용형’처럼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유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의 질을 고려했거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다.

(4) 본질적 회심형

내재적 종교성이 높고 외현적 종교성은 낮은 내재적 집단을 ‘본질적 회심형’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구애되지 않고 종교 본연의 모습에 이끌려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이순형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외현적 집단, 즉 도구적 이용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2005년 수행된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교성향이 모두 높은 친교적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종교적 집단이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반종교적 집단, 친종교적 집단 순으로, 여성은 친종교적, 반종교적 집단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종교의 내재성에 그 가치를 두지 않고 종교를 도구로 삼는 경향이 커지는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V. 종교 단체의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역할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 간의 기대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교회 등 종교 단체로부터 신이나 성도와의 교제로 인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 이유는 사람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가치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이념체계인 주체사상이 물질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용기, 2012). 종교 기관 역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이나 목적 자체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의 차이가 커질수록 종교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가속화된다.

종교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로의 적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서 지원하고 돕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도구화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동화적응 하는 존재로 여기고 정책의 목표가 이들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설정되는 것이 과연 종교 본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은 이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적응시키는 것으로부터 확장되어 사회가 강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들 집단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다문화적인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종교 단체의 인식 변화는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종교단체가 북한주민을 접할 때 이들의 종교성향이 내재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외현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종교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처음 종교와

만날 때 종교적 가치 자체보다는 종교로부터 오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에 더 쉽게 끌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단체로부터 오는 대가가 과거와 비교해서, 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들은 종교적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종교 활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하고 지원할 때, 먼저는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고 이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접근은 지원의 책무가 일차적으로는 통일부 즉 국가에 있으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며,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선교나 세계선교의 도구로 보고 선교 자원으로 양육·훈련하고자 하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의 성찰이자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교사회복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논리와는 무관한 순수한 인도주의에 그 기본적 토대를 두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이자(노길명, 2010: 196), 여기에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나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보고 사회의 모순 구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사회정의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병철, 2011). 이러한 점에서 종교사회복지가 지닌 비정부적이고 비영리적인 성격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특히 종교복지시민단체의 돌봄은 단순 자선 활동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재활과 사회복지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고, 비종교 단체와 달리 공흥과 관심,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주변인으로

전략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명수, 2016). 종교 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교리에 기반한 봉사의 정신으로, 종교공동체와 종교 단체가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전명수, 2013).

종교는 대부분 이념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복지적 시선을 가지고 있고, 종교복지는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념이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행하는 복지활동이다(전명수, 2015). 처음에는 종교복지가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선, 구제와 같은 돌봄 위주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영속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척결하여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고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종교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는 교회,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 복지관 등 다양한 종교기반 복지시설과 복지시민단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종교의 사랑, 자비, 긍휼, 구제, 돌봄 등 종교의 기본 신념을 바탕으로 신자의 네트워크 등 단체가 보유한 내적 또는 외적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활동한다(전명수, 2016: 2-3).

사회복지의 역사가 종교이념의 사회적 실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사회복지의 정의나 역할, 사회적 함의에 대한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고병철, 2011; 전명수, 2011; 전명수, 2012; 전명수, 2013; 전명수, 2015; 전명수 2016), 종교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이들을 약자로 만든 사회에

대한 책임이 통감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전명수, 2011: 23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도 남한의 종교계는 깊은 책임을 가져야 하고, 종교사회복지의 과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의 책임과 사회복지를 통한 종교의 자기성찰로 요약 가능하다(전명수, 2011: 237).

1.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의 책임 수행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의 책임에서 책임이란 복지대상자들이 그러하게 된 원인에 대해 종교가 책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으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남한의 종교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성 아래 통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거주과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실생활의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박현식, 2013) 따라서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부적응, 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 여성화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빈민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입국과 적응 문제, 가족 해체로 인한 결핍의 문제 등을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져 있으나 피부에 닿는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의 문제에도까지 다가가서 지원을 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은 서울의 몇몇 대형교회에 집중되어 지역적, 수혜자적 한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종교와 종교 단체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환대’의 의무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들이 기복적 신

양이 강하고, 내재적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직면하는 상처와 배신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들 중 외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도구화하는 경향이 강해 종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지만 그만큼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세 명 중 한 명은 반종교적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 본연의 가치와 신앙을 소개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남한의 종교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이 환영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 사회에 도구적 가치로 유용해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서의 가치, 즉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으로 접근하는 일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순수한 환대나 무조건적 환대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초청자의 언어, 전통, 기억이나 그가 속한 영토의 법률과 규범들에 순응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도착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김진, 2011).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나의 집을 개방하고,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도 줄 것을, 그리고 그에게 장소를 줄 것을, 그를 오게 내 버려둘 것을, 도래하게 두고 내가 그에게 제공하는 장소 내에 장소를 가지게 둘 것을, 그러면서도 그에게 상호성을 요구하지 말고 그의 이름조차도 묻지 말 것(자크 데리다, 2004: 70-71)’-를 법률로 반영하는 국가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유를 통해서라도 초대받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관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적 환대와는 달리 무조건적 환대는 정치적인 것, 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초월해 나간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새

로운 도전과 반성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전략 제고나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고찰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거나(고성행, 2016; 곽연실, 2008; 김병욱, 2010; 김영식, 2009; 박예영, 2015; 심우구, 2010; 윤현기, 2012), 남한 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해야 한다거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 통일을 실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머무른다(류재화, 2016; 박이석, 2016). 이러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대가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신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세계선교나 북한선교와 같은 선언적 구호 앞에 북한이탈주민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삶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교회들이 오히려 성장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러와 야마모리는 개발도상국의 교회들 중 성장하고 있으면서 사회봉사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체험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원천으로 한 교회들의 사회봉사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 두드러지는 교회성장을 이루는 것을 확인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집을 제공하고, 윤락 여성과 미혼모들을 돌보며, 에이즈의 위험성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며, 마약 중독자들을 마약에서 해방시키며, 빈민가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이룬 것이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에 남한의 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종교적 영적 욕구를 배경으로 한 종교복지가 현대를 살아

가는 이들의 문제들, 그 중에서도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영적 돌봄을 함께 하는 전인적 복지활동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밀러 외, 2008; 전명수, 2015).

2. 종교의 자기성찰의 역할 수행

종교사회복지의 두 번째 과제는 종교의 개인적 기능으로써 자기성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와 신앙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것인데, 한국의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성찰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성찰의 기준과 좌표로 작용해야 한다. 양적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삼는 세속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함으로 종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성공과 세속을 향해 달음박질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무너진 가치체계에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문제해결과 현실에 대한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손상된 개인능력의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손신, 2010: 218-219).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단절과 상실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교가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성종교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자기 성장에 대한 지나친 경도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때문이다(이원규, 1994: 460; 전명수, 2012: 256 재인용).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2017년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20.2%로, 남한 사회에서 5명 중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40대에서는 2013년보다 한국의 교회에 신뢰도가 떨어졌고, 가

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결과로 개신교는 천주교(32.9%), 불교(22.1%)에 이어 겨우 3위(18.9%)에 그쳤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 ‘사회통합 기여’, ‘현 시국에서의 역할’을 잘 하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38.7%, 33.3%, 22.2%로 답해 한국의 교회가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남한 사회의 허리이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청·중년층은 개신교를 점점 덜 신뢰하고, 기독교인들조차 현 시국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잘 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조사된 것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이념과 가치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한국 종교계는 “양적 성장과 질적 저하”라는 말로 집약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의 종교는 광복 이후 종교계는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에 맞는 종교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광복 이후 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 풍조의 종교계로의 유입으로 세속화되어 종교 정체성의 확립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종교 단체는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질병, 고통, 죽음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경험들을 해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인성의 통합과 삶의 조직화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규범의 제시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종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노길명, 2005: 7, 294).

한국은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을 진행 중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교전행위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하고 있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DNA는 지금도 발현되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조는 종교계에도 깊숙하게 들어와서 종교의 세속화에 불을 붙였고, 남한 사회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종교로부터 이를 학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여 생활할 때 동화형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는 분리형 동화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종교가 정해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남한 행 티켓을 먼저 쥐어 주고, 종교적 열심을 대가로 생활지원금을 주는 등 종교와 신앙이 성공과 출세의 길이 되는 것처럼 종교 스스로가 이들을 세속화 하는 것도 멈추어야 한다. 종교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을 스스로 회복하여, 우리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방향과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바로 알고 역할을 수행할 때, 급속하게 변화하는 남한 사회에서 별다른 기술과 인맥 없이 생활하는 북한이탈여성이 자신과 북한 내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인방송에 등장하는 것(동아일보, 2017/06/23)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올바른 지침과 나침반으로써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개신교로 대표되는 남한의 종교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 제3국 체류, 국내로의 입국, 국내 정착에 대한 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오면서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참여율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종교인에 대한 실망, 종교 단체의 현금이나 현물 지원

의 차별화 등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 단체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해 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들이 종교 형태를 바꾸는 이유는 절대적 신념으로 고수해왔던 주체사상과 김일성에 대한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종교적 신념을 그 대안으로 삼았으나, 이 종교적 가치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종교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종교적 보상이 종교 참여의 동기로 작용하여 종교 형태를 변화시키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사람들과 다른 종교성을 가지는데 남한 주민이 내재적 성향이 높고 외현적 성향이 낮아 비교적 종교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북한 주민은 외현적 성향이 높아 종교를 자신의 생활에 이용하여 종교를 도구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종교 단체는 서로에게 거는 기대에 차이를 보이고, 결국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교를 이탈하거나 변형시키는 북한 주민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종교계 지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먼저 남한의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도구화하는 것을 멈추고 북한이탈주민 그 자체를 환대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자기 성찰의 책임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모습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단절과 상실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5.4%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2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7).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남한의 종교계에 책임을 부여하고자 한다. 종교적으로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선교적 가치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관심을 두고 돌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돌보는 종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종교 단체의 의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종교 생활을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현상을 고찰하였고,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기독교 신자를 자칭하기 때문에 남한 교회의 역할과 갈등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한국 교회의 활동을 폄하하거나 종교 단체의 노력과 수고를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남한 교회의 역할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었던 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종교계의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천주교나 불교, 원불교 등 개신교 이외의 종교 단체와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작용은 이 종교들이 개신교에 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적 책임과 역할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바, 실천 사례가 더 모아져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상호작용과 갈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병철. 2011.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19권 제0호, 244-284.
- 고성행. 201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실태분석을 통한 통전적 선교방법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연실. 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혁률. 2016.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찬반 논란과 흡수통일 가능성.” 『기독교사상』 제2016년 제5호, 237-24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 김병욱 외. 2010. “북한사회의 ‘수령교’와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 김영식. 200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신교회 지원 프로그램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태. 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3호, 81-115.
- 김용기. 2012. “주체사상에 투영된 인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교육사역에의 적용.” 『개혁논총』 제22권.
- 김정규. 2016.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38권 제6호, 167-215.
- 김종군. 2015. 『탈북청소년의 한국살이 이야기』. 서울: 경진출판.
- 김진. 2011. “데리다의 현대의 철학과 정치신학.” 철학연구 제95권, 59-93.
- 김치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정책과 민간단체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63-95.
- 김태수. 2009. “한국 이주난민의 문제들과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2009년 제4호, 113-132.
- 김현경. 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한국학술정보.
- 김현정. 2016.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통일인문학 제6호:

161-196.

- 노길명. 2005. 『한국의 종교운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0. “종교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장.
- 데리다, 자크·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류재화.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 논문.
- 밀러, 도날드 외 저·김성건 외 옮김. 2008.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거?: 기독교적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 성령운동』.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박건수. 2014. “북한이탈주민의 영적의미 인식이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광득 외. 2002.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 『통일전략』 제2권 제1호.
- 박예영. 2015.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이석. 2016.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25권 제0호: 1-21.
- 박현식. 2013.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제52권.
- 변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2권 제1호, 1-45
- 손 신. 2010.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논단』 제59권, 201-226.
- 심우구. 201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교 방안.”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계민. 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3호, 165-193.
- 양계민 외.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0권 제1호, 131-152.
- 유시은 외. 2012.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지적 연구.” 『통일연구』 제16권 제2호, 67-120.
- 유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2006년 제6호, 151-153.

윤여상. 200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교 단체의 역할.” 『영남정치학회보』 제14권, 87-120.

_____. 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인진 외. 2007. “북한이주민 가족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2호, 89-108.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서울: 집문당.

윤인진. 2015.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남북하나재단·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윤현기. 201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과 가치관 변화.” 『ACTS 세계선교연구』 제2호, 126-155.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3.12

이민지 외.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459-481.

이소희. 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24권 제3호, 124-131.

이순형 외.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3,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순형 외. 2015. 『서울대학교통일연구총서24: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영선. 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제56권, 147-193.

이원규. 1994. “한국의 종교계의 문제와 개혁과제.” 『한국 사회개혁의 과제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서울: 새길.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제1호, 207-241.

_____.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2권 제1호, 1-45.

임정빈.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49-272.

장명선 외.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적 관점을 중심

- 으로.”『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379-422.
- 전명수. 2011.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과 과제를 중심으로.”『종교연구』 제64집, 221-246
- _____. 2012. “종교와 사회복지의 접점: 종교의 사회적 책임고과 복지활동의 실제.”『종교연구』 제68집, 253-280.
- _____. 2013. “종교사회복지담론의 재고찰.”『종교문화연구』 제20호. 279-311.
- _____. 2015.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재성찰.”『담론201』 제18권 제2호, 65-92.
- _____. 2016.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종교와 문화』 제30호, 1-31.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09-167.
- _____. 2010.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통일 실험, 그7년』 제2장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전우택 외.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통일연구』 제7권 제1호, 155-208.
- 전우택 외. 2009.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193-216.
- 정진현. 2007. “탈분단·다문화 시대, 마이너리티 민족지”,『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서영. 1999.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NGOs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 외. 2004.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성향과 자아방어유형.”『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8집, 279-300.
- 조정아 외. 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진미정 외. 2009., 『탈북인의 사회적관계망과 사회적자본』. 서울: 학지사.
-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검색일: 2017년 8월 30일).
- 최승주. 200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과 우울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종교 활동과 종교성향.”『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제27장.

- 최영민 외. 2002. “한국판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6호, 1197-1208.
- 한국갤럽.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 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지은. 2017a.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5권 제2호, 27-33.
- . 2017b.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방안 연구 :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675-684.
- Hood RW. 1970.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report of religious experienc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9(4): 285-291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7. “북한이탈주민의 약 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3월14일).
- 『기독일보』. 2015. “탈북민 35%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생각... 교회가 탈북민 돌볼 책임 보여줘.” (12월22일).
- 신규진, 이호재. 2017. “야방北女... 낯선땅 쉬운 돈벌이 유혹: 20대 탈북여성이 만난 자본주의.” 『동아일보』(6월23일).
- 이지희. 2015. “조중 국경 통제 강화로 북한 사역 환경 어려워져.” 『기독일보』(2월 27일).
- 주성하. 2013.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동아일보』저널로그. (8월 26일).
- 통일부 보도자료. 2016.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11월25일).
- 『한겨레신문』. 1999. “북한이탈주민 지원민간단체협의회 구성” (11월4일).
- 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 “북한이탈주민 미혹하는 이단들: 대부분 돈 때문에 이단 교회 출석.” (4월3일).

ABSTRACT

The Role and Tasks of Religious
Organiza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s
: Focusing on the supports and conflicts of
Protestant organizations exposed in the
process of defecting and adapting

Choi, Sung-joo

(Doctoral Program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The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for adaptation and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expanded to the intervention of civilian organizations and especially the activity of religious groups represented by Protestant organizations. As a result,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start their religious activities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ng and settling. Recently, however, the rate of religious participation by North Korean refugees has decreased and conflicts have increased due to differences in expectations betwee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and refugees. The background and cause of the change of religious activities were surveyed focusing on their unique religious orientations.

To overcome these conflicts, the author suggests religious support as a religious social welfare. First, Protestant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must restrai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religion, stop the tooling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elcome them by themselves. In addition to reflecting the secular and growth centered

perspectives, it is necessary to recover responsibility for presenting meaning and means of life to North Korean refugees by acting as an alternative to healing disconnection and los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activity, religious social welfare, Protestantism